

금년도 용신봉사상 받은 이금봉

—일명 “소록도의 어머니”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매년 희생적봉사자로서 지역 사회개발에 헌신한 여성들에게 주는 용신 봉사상수상자가 금년엔 아홉번째로 본회가 추천한 현재 국립소록도병원 간호과장으로 일하는 이금봉(李金鳳)회원에게 돌아가 개인의 보람은 물론 간호계의 큰 영광을 가져왔다.

“이영광을 전 간호원에게 물리겠다”고 말하는 이금봉씨는 서글서글한 눈매와 큰 키에 말수 적은 분으로 인고(忍齒)를 겪은 흔적인양 얼굴엔 주름이 깊게 보이기도 했다.

·외딴섬 소록도, 버려진 그 섬마을에도 우리인간의 숨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실증해 주고 갔다.

시상전 기쁜소식을 전하는 본협회의 빛발치는 편지와 장거리전화에도 마다하고 수상을 거절하며 애초 이력서 사진 한장을 안보내주던 그 사람이 소록도바다를 건너 상경하기 까지엔 겸손과 사양하는 마음을 음직일 수가 없었다.

본회의 간곡한 청으로 이날 식에 겨우 참석한 이금봉씨는 상장과 부상을 받아든채 감격에 넘쳐 사방에서 들이대는 기자들의 취재공세에도 말을하지 못하고 울먹일 뿐이었다.

포장장에서 「세상에서 버릴받은 그들의 실움과 미움을 어루만져 새사람으로 소생시켜 주는 짙음을 다 바친 간호원이라고 칭송했듯이, 순박하고 다감한 그의 가늠한 마음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전형적인 「간호원의 상」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날 상금으로 받은 10만원엔 가장 보람있게 쓰겠다고 하며 이제 떨어져 살 수 없는 고도의 불우한 그들에게 부족한 약을 보내달라는 뜻에서 보사부장관에게 5만원을 전할했으며 여성단

체협의회와 건축기금으로 보배달라고 남은 5만원을 마저 내놓고도 본회에 장학기금으로 가의돈 만원을 더 내놓아 주위사람들을 어리벉벉하게 하였다.

현재 가족으로는 목회일을 보는 목사인 부군 신도식(申道植)씨와 1남1녀가 있다. 장녀 순경(順敬, 26세)양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간호원으로 서독에 가 있으며 아들 제호(濟浩, 23세)군은 대학에 다니다 현재 군에 들어갔다.

애초 전남 고흥에 살던 이금봉씨가 처음 소록도에 들어간 것은 1942년4월, 18세 되던 해이다.

소록도병원 부속 간호원양성소를 수료, 소록도에서 3년간 일하다가 고향에 돌아와 23세 되던해 신도식씨의 결혼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몸이 약한 부군과의 격리생활을 하려고 1953년 다시 잊지못했던 소록도를 찾았다. 그후 20년을 하루같이 나환자들을 돌봐온 그다.

외진섬, 밤이던 사망으로 둘러싸인 바다의 거친풍랑, 무성한 숲, 울썩미울음 소리 모두가 소름끼치도록 두서운 환경에서 처음엔 보기만 해도 선직한 형상의 나환자들과 함께 지세기에 들서리를 치기도 했지만 아주 순박하고 인정넘치는 그들에게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말씀을 되새기고 그들을 돌고 살겠다는 일념을 버리지 않았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에서 고름이 나고 눈섭

회 원

존경 받기도—

이 없는 사람, 얼마전 까지만 해도 붓고치는 병, 사람의 간을 빼먹어야 낫는다는 전연 불치의 병으로 알고있던 나병환자가 자기의 한결같은 손길을 거쳐 완치되어 물오르듯 아갈 땐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떨어져 있는 남편과 아이들의 투정없는 편지를 받는 것이 유일한 격려로서 나환자들을 돕는 손길은 영원불변이다.

이제 근속 20년의 소록도생활이다 4천여 나환자들이 살고 있고 이들을 보살피는 의사 2명과 자기를 포함한 간호원 6명뿐이 살고 있는 모두가 피하는 소외된섬의 생활이다.

나환자들의 일상생활은 양재와 양잔에 종사하여 닭, 누에를 키우는 일로 하루를 맞이한다.

아이들(미감아)은 태어나는 즉시 따로 집단수용되며 최근엔 이 미감아들을 위한 국민학교 중학교가 세워져 현 2백여명의 아이들은 정상교육을 받고 있다고.

이 기회에 아직도 사회에서 냉대받는 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이 베풀어지기를 부탁한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이날 표창장을 앞대놓고 감격의 표정을 짓는 이글봉회원〉

이번에 받은 표창을 더 잘 하나는 체적으로 알고 힘껏 일하겠다며,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한시타드 손이 아쉬운 소록마을로 총총히 내려갔다.

귀향한 즉시 본회 회장 및 수고해 주신 여터 직원에게 일일이 감사편지를 띄워 고맙다는 뜻을 보내왔다.

천사같은 그의 가룩한 다음에 항상 행복이 있기를 빈다.

「용신봉사상」 유래

「용신봉사상」은 소설 상록수(沈黙作)의 주인공 최용신 여사의 공도를 기념하고 그 뜻을 받아 조국발전 에 이바지 하는 여성들 그중에서도 희생적 봉사로서 지역 사회개발에 공헌이 현저하고 탁월한 창의성을 발휘하여 함포건설에 모범이된 여성에게 그 공로를 치하

하고 그 업을 격려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상으로서 한 국여성단체 협의회가 제정하여 가입단체회원중에서 그 공로자를 선발 매년 갖는 여협주최 여성대회 석상에서 시상키로 되어있는 상이다. 본회에서는 최선은선생이 첫번, 이글봉회원이 두번째로 받게 되었다.